딥시크가 깔아준 판, 어닝과 금리하락 반영하며 순환매



투자전략팀 _ LS.Research@ls-sec.co.kr
황산해 _ sh.hwang@ls-sec.co.kr

딥시크발 급락 이후 AI 산업 내 차별화와 AI 외 업종으로의 로테이션 흐름 출현

미 증시는 DOW +0.38%, S&P 500 +0.53%, NASDAQ +0.25%, Russell +1.07%로 상승 마감. 딥시크 사태의 낙폭 과대 인식에 따라 AI 인프라와, 일부 반도체, IT 서비스 등의 강한 반등이 출현. M7 내에서도 비교적 견조한 흐름의 알파벳, 메타, 아마존과 부진한 엔비디아 그리고 실적 실망감에 급락한 마이크로소프트(-6.2%)로 차별화가 진행되는 모습

어닝 시즌과 FOMC 이후 한풀 꺾인 국채 금리는 IT, 컴스에서 그 외 업종으로의 로테이션 흐름을 자극. 11 개 섹터 중 IT(-0.6%)를 제외한 10 개 섹터가 상승 마감. 유틸리티(+2.1%), 부동산(+1.4%), 헬스케어(+1.2%), 산업재(+1.2%) 등이 아웃퍼폼. S&P500 종목들 중 413 개 종목이 상승 마감에 성공했으며 M7(-0.0%) 등 대형주보다 중소형주 중심의 강세가 두드러짐

미국 상장 중국기업인 ETF 인 골든드래곤차이나(PGJ, +4.2%)의 강세도 두드러졌는데 딥시크 발 모멘텀으로 이어가던 중 알리바바(+6.2%)도 LLM 모델인 큐원 2.5-맥스를 출시하며 편승을 시도. 더해 중국 내 춘절 이동이 역대 최대치 수준이며 마카오 관광청이 올해 방문객 전망을 코로나 이전 수준인 3 천 9 백만명으로 제시했단 소식이 전해지자 중국 내수 기대감이 회복되는 모습. 미국 카지노 업종 LVS(+11.1%), 윈리조트(+6.5%) 등도 급등

미 국채 금리는 2Y 4.21%(-0.6bp), 10Y 4.52%(-1.2bp)로 하락. 예상보다 부진했던 4 분기 GDP 와 ECB 의 금리 인하를 반영. 다만 헤드라인과 대조적으로 여전히 견조한 내수지표와 장 막판 트럼프발 관세 우려에 하락세 제한되는 모습. 유가는 WTI 기준 +0.74% 상승한 $73.2 로 캐나다와 멕시코의 관세부과 우려를 반영

4분기 GDP 쇼크, 내수는 견조

4 분기 GDP 성장률 속보치는 연율 2.3%로 컨센(2.7%) 및 3 분기(3.1%) 수치 하회. 그럼에도 개인소비지출(PCE)가 4.2% 증가하며 3 분기(3.7%) 대비 상승폭을 확대. 반면 비주거부문 투자 증가율은 -2.2%로 3 분기 대비 -6.6%p 급락. 보잉 파업, 재난, 대선 불확실성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

ECB 의 1 월 통화정책회의에서는 만장일치로 25bp 인하를 결정하며 예금금리를 3.00%에서 2.75%로 인하. 라가르드 총재는 서비스 물가에 대한 우려를 표현하면서도 경제성장에 대한 위험이 존재하며 임금 압박이 완화되고 있음을 강조.

트럼프발 관세 데드라인 임박한 멕시코·캐나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기준 30일 기자회견에서 멕시코와 캐나다 향 관세 부과 가능성을 다시 한번 시사. 더해 30일 저녁까지 캐나다산 원유에까지 관세를 적용할지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 발언함에 따라 유가가 일시적으로 급등. 반면 캐나다 달러와 멕시코 페소는 급락하는 변동성 출현. 트럼프 대통령은 2월1일부터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시행하겠다 발언한 바 있음

Global 주요 증시

주요국가	전일 종가 (pt)	장중추이	수익률 (%)				
			1D	1W	MTD	1M	YTD
DOW	44,882.13		0.38	0.71	5.50	5.42	5.50
S&P500	6,071.17		0.53	-0.78	3.22	2.78	3.22
NASDAQ	19,681.75		0.25	-1.85	1.92	1.00	1.92
Russell 2000	2,307.45		1.07	-0.31	3.47	3.58	3.47
Stoxx 600	538.84		0.86	1.60	6.15	6.73	6.15
영국(FTSE)	8,646.88		1.04	0.95	5.80	6.48	5.80
상해종합	3,250.60		휴장	0.63	-3.02	-4.60	-3.02
홍콩H	20,225.11		휴장	2.66	0.82	0.92	0.82
니케이225	39,513.97		0.25	-1.11	-0.95	-0.95	-0.95
KOSPI	2,536.80		휴장	0.85	5.72	5.72	5.72
EUREX KOSPI200	335.85		휴장	0.55	5.32	5.32	5.32
KOSDAQ	728.74		휴장	0.65	7.45	7.45	7.45
인도(NIFTY)	23249.50		0.37	0.19	-1.67	-1.67	-1.67

FICC

구분	전일 종가 (pt)	추이 20D, Daily	변동(bp, %)				
			1D	1W	MTD	1M	YTD
미국채 2년(%)	4.21		-0.6bp	-8.2bp	-3.4bp	-3.4bp	-3.4bp
미국채10년(%)	4.52		-1.2bp	-12.7bp	-5.3bp	-1.6bp	-5.3bp
국고채3년(%)	2.56		-	-0.5bp	-3.5bp	-3.5bp	-3.5bp
일본10년(%)	1.21		2.0bp	0.8bp	12.4bp	12.4bp	12.4bp
달러인덱스(pt)	108.13		0.12	0.08	-0.33	-0.00	-0.33
NDF 환율(1M)	1445.10		0.21	0.74	-2.08	-1.70	-2.08
유로/달러	1.04		-0.29	-0.23	0.36	-0.15	0.36
위안/달러	7.24		0.00	-0.57	-0.75	-0.75	-0.75
엔/달러	154.29		-0.60	-1.13	-1.85	-1.63	-1.85
WTI(NYMEX)	73.16		0.74	-1.96	2.68	3.73	2.68
천연가스	3.08		-3.00	-11.28	-0.74	-6.05	-0.74
구리(LME)	8975.74		0.50	-1.95	2.95	1.26	2.95
금(NYMEX)	2794.59		1.28	1.44	6.48	7.22	6.48

특징주: MSFT 클라우드 매출 부진, 여전히 부진한 AAPL의 중국 시장

마이크로소프트: MSFT — -6.2%, 클라우드 매출 부진에 주가 부진

전일 장 마감 후 2FQ25 실적 발표. 매출 $69.6B, EPS $3.23로 컨센 상회. 견조한 실적에도 불구, **주요 사업 부문인 인텔리전트 클라우드 매출($25.54B)이 컨센($25.83B)을 하회**하자 주가 하락세로 연결. CFO는 현재 자사의 데이터 센터 용량이 수요에 비해 충분치 않아 매출 타격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부연. 한편, 동사는 자본지출에 대해서는 향후 몇 년 간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특히 **FY25에는 AI 데이터 센터향 지출이 약 $80B**에 달할 것이라 전망. 최근 중국판 Chat-GPT인 딥시크 공개 후 저가형 Chip을 통해서도 충분히 AI를 구현할 수 있다는 분석들이 앞서 제기. 이에 금주 집중된 빅테크들의 어닝콜에서 자본지출 전망에 대한 관심이 집중된 바 있음. 다만, 현재 시장에서 전망하고 있는 **빅테크 CapEx의 추세적 감소 전망, 대중 제재 강화, 실제 딥시크 기능의 신뢰 가능성** 의문 등 다양한 시나리오들이 산재되어 있는 상황

애플: AAPL — -0.7%, 마감 후 +3%대 상승, 여전히 부진한 중국 시장

장 마감 후 1FQ25 실적 발표. 매출 $124.3B, EPS $2.4로 컨센 상회. **서비스 부문이 역대 최고치 달성 성공했으나, 중국 시장 부진에 일부 상쇄**된 모습. 중국 시장 매출은 현지 브랜드 강세 영향으로 -11.1%YoY 감소한 $18.51B 기록. **팀 쿡 CEO는 애플 인텔리전스가 적용된 시장 내에서 아이폰 16 판매량이 강세 보였다며, 해당 기능이 적용되지 않은 중국 시장에서의 판매 부진을 반박. 또한, 애플 인텔리전스가 올 4월 중국어를 포함한 지원 언어 확대 계획 발표한 점 등이 중국 부진 우려를 상쇄.** 더해, 유럽, 미국 등 시장에서는 판매 강한 점 등이 부각되며 마감 후 주가 상승. 한편, 2FQ 매출 가이던스는 환율 영향에도 불구, 로우-미드 싱글 수준의 성장률 전망

테슬라: TSLA — +2.8%, 전기차 판매량 감소에도 기대감에 반등

전일 장 마감 후 4FQ24 실적 발표. 매출 $25.71B, EPS $0.73로 컨센 하회. 동사 매출 80%를 차지하는 **EV가 전방위적인 글로벌 판매 둔화로 인해 감소한 점이 실적 부진**으로 연결. 또한, 작년 **모델Y의 할인 판매와 R&D 비용 증가**로 매출 및 영업이익이 감소에 영향. 다만, **어닝콜 이후 급락했던 주가는 저가형 신차 모델과 로보택시 서비스 등 기대감 재차 부각되며 반등 성공**. 한편, 미국계 IB들은 테슬라 잠재력에 대해 지속적인 의구심을 제기. 산재되어 있는 단기 리스크 등으로 주가 하락 가능성이 부각되는 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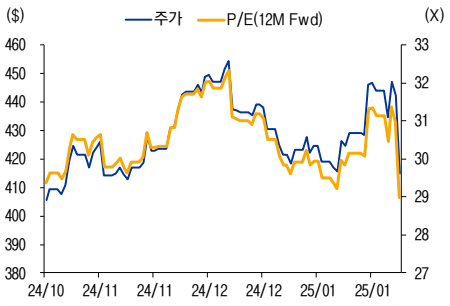
UPS: UPS — -14.1%, 아마존 물량 감축 계획 발표

4FQ24 실적 발표. 매출 $25.3B, EPS $2.75로 컨센 대비 매출 하회, EPS 상회. 내수 부문 매출은 +2.2%YoY로 전분기 대비 상승폭이 축소되었으나, 인터내셔널 부문은 +6.9%YoY로 증가세 지속. 다만, 여전히 팬데믹 이후 **고객층에서 가성비 배송 옵션 선택이 선호**되고 있고, **최대 고객사인 아마존과의 계약 물량을 최대 50%까지 감축할 것이라는 계획 공개**되자 주가 급락으로 연결. UPS측은 아마존 물량이 대부분 저마진 배송 옵션이라며, 수익성 문제를 주요 근거로 제시. 또한 FY25 매출 가이던스도 부진하게 제시되며 주가 하방 압력 가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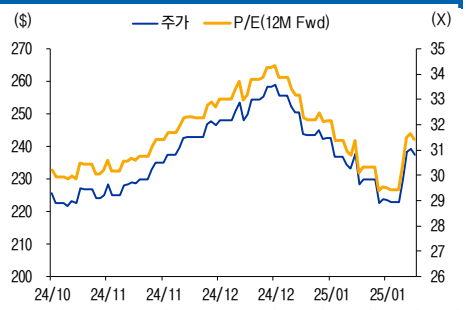
기타 코멘트 — CAT(-4.6%), IBM(+13.0%)

캐터필러(-4.6%)는 부진한 4분기 가이던스 및 매출 기록하며 주가 하락. **IBM(+13.0%)**은 호실적 공개와 더불어 AI 컨설팅 사업 부문 특성 상 딥시크 경쟁 구도에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포지션으로 부각되며 주가 급등

마이크로소프트: MSFT



애플: AAPL



● S&P500 섹터 수익률

순위	섹터	수익률(%)		수익률(%)
	Top 세부업종	1D	Bottom 세부업종	1D
1	유틸리티	2.14		
	독립 전력 생산업체/	11.95	수도 유틸리티	-0.47
2	부동산	1.36		
	사무실 리츠	5.17	호텔/리조트 리츠	0.30
3	건강관리	1.16		
	생명과학 도구/서비스	3.40	생명공학	0.34
4	산업재	1.15		
	건설/엔지니어링	3.86	항공화물운송/물류	-8.53
5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1.14		
	양방향 미디어/서비스	2.27	미디어	-7.35
6	필수소비재	1.07		
	개인관리용품	2.55	담배	-0.26
7	소재	1.00		
	금속/채광	1.94	용기/포장지	-1.05
8	금융	0.94		
	금융 서비스	1.62	캐피탈 시장	0.53
9	자유소비재	0.59		
	자동차	2.60	대규모 소매업	-0.98
10	에너지	0.53		
	에너지 장비/서비스	1.44	석유/가스/소모연료	0.45
11	정보기술	-0.56		
	IT서비스	5.46	S/W	-3.86

● 종목 수익률 상하위 TOP 5 (%)

	UP	1D	DOWN	1D
1	비스트라	13.6	UPS	-14.1
2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머	13.0	서비스나우	-11.4
3	라스베이거스 샌즈	11.1	컴캐스트	-11.0
4	GE 베르노바 Inc	8.4	CH 로빈슨 월드와이드	-6.9
5	램리서치	7.4	시그나	-6.7

● ETF 수익률 상하위 TOP 5 (%)

	UP	1D	DOWN	1D
1	DFND	6.2	UNG	-3.7
2	SILJ	5.2	UNL	-3.5
3	SIL	4.7	ELD	-1.9
4	MSOS	4.5	PFIX	-1.8
5	BLOK	4.3	IYT	-1.8

● ETF 거래량 상위 유니버스: 수익률 TOP 10

	Top ETF	추이	1D
1	NUGT		7.9
2	CWEB		7.5
3	MSOX		7.4
4	KOLD		7.2
5	AGQ		6.9
6	UTSL		6.6
7	YINN		6.4
8	TSLT		6.2
9	DFEN		6.1
10	BRZU		6.1

● 테마 ETF 수익률 (%)

	테마	Ticker	1D	20D 추이
1	디지털 경제	DAPP	5.0	
2	대마	MSOS	4.5	
3	블록체인	BLOK	4.3	
4	재생에너지	CNRG	3.0	
5	비디오 게임&eSports	ESPO	2.1	
6	핵에너지	URA	2.0	
7	환경	ERTH	1.7	
8	핀테크	FINX	1.5	
9	디지털 결제	IPAY	1.5	
10	소비재	XRT	1.5	